

# 루닛

## 가던트헬스 블록딜 코멘트

- 루닛의 2대 주주 가던트헬스, AUM 4조 규모 자산운용사에 지분 일부 '블록딜'
- Analyst's Insight: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매도 가능성이 높아보임

### 루닛의 2대 주주 가던트헬스, AUM 4조 규모 자산운용사에 지분 일부 '블록딜'

동사는 루닛의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투자자인 가던트헬스가 보유 중이던 루닛 주식 155만 주(5.44%) 중 40만주(1.46%)를 미국 뉴욕의 브룩데일자산운용(Brookdale Asset Management)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였다고 27일 장전 공시하였다. 루닛 지분은 3.98%(115만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대 주주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다. 매도 단가는 전 일 증가(48,350원)에서 8% 할인된 44,482원으로, 총 거래금액은 약 178억원이다.

루닛 측은 이번 블록딜이 가던트헬스가 최초로 투자한 지 만 3년이 지남에 따라 투자수익 실현 및 일부 원금회수 목적의 재무전략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과는 무관한 조치이며, 일본 등의 선진시장 진출 및 후속제품 출시 협력 등 오히려 양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Analyst's Insight: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매도 가능성이 높아보임

27일 장전 가던트헬스의 블록딜 공시 후, 루닛의 주가는 전날 증가 대비 4% 떨어진 46,500원에서 시작해 하락세가 이어졌다. 장종료까지 약 9% 급락하며 블록딜 매도단가 (44,482원) 아래인 43,800원으로 마감하였다. 이는 2021년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루닛 2대 주주에 오른 후 지분율을 유지해오던 가던트헬스가 블록딜에 나서자,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사업 시너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해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블록딜은 루닛과 가던트헬스 간의 협력 관계의 문제보다는 가던트헬스의 재무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던트헬스는 연간 매출이 지난 5년간 약 3배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Cash burn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년간 현금 소모는 3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지난 밤 가던트헬스의 주가는 약 8% 급락하였는데, 이는 최대 4억 달러의 현금 조달 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 1년간 30% 그리고 지난 5년간 69% 하락한 가던트헬스의 주가와 현금고갈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던트헬스측은 타사 지분 매도를 통해 투자한 원금의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사의 사업 시너지 감소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